

PART

1

취미가 문법이라

1단원 - 음운과 음절, 음운 체계



1.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분절 음운(음소)	나눌 수 있는 음운	자음과 모음
비분절 음운(운소)	나눌 수 없는 음운	소리의 장단, 높낮이, 세기

올이썸의 끼어들기_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음운’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단위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물’과 ‘불’로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물’과 ‘불’을 각기 다른 뜻으로 곧잘 구별할 수 있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음 ‘ㅁ’과 ‘ㅂ’이 다르기 때문이지. 이때, 이런 자음들을 ‘음운’이라고 해. ‘감’과 ‘곰’도 살펴볼까? 두 단어가 다른 뜻이 되는 이유는 모음 ‘ㅏ’와 ‘ㅑ’의 차이 때문이야. 이런 모음들도 ‘음운’에 해당되지. 자음과 모음은 쪼개서 분리할 수 있지? 이렇게 쪼갤 수 있는 음운을 ‘분절 음운’이라고 해.

‘비분절 음운’은 소리의 장단이나 높낮이 같은 거야. 예를 들어 눈(eyes)은 짧게 발음하고, 눈(snow)는 길게 발음하지. 이때, 소리의 길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눌 수 없어.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걸 나눌 수 없다는 뜻의 ‘비분절 음운’이라고 해.

2. 최소 대립쌍: 하나의 음운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되는 단어들의 쌍. 최소 대립쌍은 음운을 구별할 때 활용할 수 있음.

올이썸의 끼어들기_ 최소대립쌍

최소 대립쌍인 단어쌍을 찾아볼까? ‘물’과 ‘불’, ‘물’과 ‘말’, ‘물’과 ‘문’ 등등.. 이렇게 최소 대립쌍이 있으면 차이가 나는 각 소리는 하나의 음운으로 볼 수 있어.

- (1) ‘물’과 ‘불’ - ‘ㅂ’과 ‘ㅁ’은 음운
- (2) ‘물’과 ‘말’ - ‘ㄴ’과 ‘ㄹ’은 음운
- (3) ‘물’과 ‘문’ - ‘ㄹ’과 ‘ㅁ’은 음운

참고로 비분절 음운에 의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쌍도 최소 대립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추가 학습자료

표준 발음법_ 소리의 길이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 (1) 눈보라[눈:보라] | 말씨[말:씨] | 밤나무[밤:나무] | 많다[만:타] |
| (2) 첫눈[천눈] | 참말[참말] | 쌍동밤[쌍동밤] | 수많이[수:마니] |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반신반의[반:신 바:니/반:신 바:니] 재삼재사[재:삼 재:사]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보아→봐[봐:] 기어→겨[겨:] 되어→돼[돼:]

다만, '오아→와, 지어→져, 찌어→찌, 치어→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따]—감으니[가므니] 밭다[밭:따]—밭으면[밭브면]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꿀다[꿀:다]—꿀어[끄:러] 뺨다[뺨:따]—뺨은[뺨:븐]
 벌다[벌:다]—벌어[버:러] 썰다[썰:다]—썰어[써:러]
 엇다[엇:따]—엇으니[엇:쓰니]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따]—감기다[감기다] 꼬다[꼬:다]—꼬이다[꼬이다]
 밭다[밭:따]—밭히다[밭피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꿀리다[꿀:리다] 벌리다[벌:리다] 엇애다[엇:쌔다]

[붙임] 다음과 같은 합성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 없이 짧게 발음한다.

밀-물 썰-물 쓴-살-같이 작은-아버지

p.s 추가 학습에 관한 설명은 넘어갈게요8ㄴ8 그냥 한 번 쓰으 읽어보고,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절대로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더라~ 정도로만 눈에 바르고 넘어가세요.

3. 음절: 한 덩어리로 소리 낼 수 있는 소리 마디로, 발음의 최소 단위
 - 모음이 반드시 있어야 음절을 이룰 수 있음. ∴ 음절의 수=모음의 수

모음(중성) 단독	아, 어, 우, 오 등 * 참고로 “초성에 ㅇ이 있는데 왜 중성 단독이라고 하시나요—?”라고 물어보는 학생은 없겠지? 초성에 쓰인 ‘ㅇ’은 소릿값이 없어. 따라서 ‘아’, ‘어’ 등은 중성 단독이라고 판단한다. 혹시 몰랐던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하기!
자음(초성) + 모음(중성)	가, 노, 두, 로 등
모음(중성) + 자음(중성)	악, 영, 읊 등
자음(초성) + 모음(중성) + 자음(중성)	강, 읊, 책 등

올이썸의 끼어들기_ 음절과 글자

음절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항상 듣는 소리가 있어. “어, 선생님 그럼 음절은 한 글자라고 보면 되네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해. 왜냐면 음절은 무조건 ‘발음 기준’이거든. 예를 들어서 ‘강올이[강유리]’의 음절은 ‘강’, ‘유’, ‘리’가 되는 것이지. 이제는 글자와 음절을 헷갈리지 말자!

4. 자음

- 자음은 조음 위치(말소리를 낼 때 발음 기관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위치)와 조음 방법(말소리를 낼 때 발음 기관이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에 따라 나뉨.

① 조음 위치

입술소리(양순음)	두 입술이 맞닿아 나는 소리	ㅂ, ㅃ, ㅍ, ㅁ
잇몸소리(치조음)	혀끝과 윗잇몸이 맞닿아 나는 소리	ㄷ, ㄸ, ㅌ, ㅅ, ㅆ, ㄴ, ㄹ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	혀의 앞부분이 센입천장에 닿아서 나는 소리	ㅈ, ㅉ, ㅊ
여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	혀의 뒷부분이 여린입천장에 닿아서 나는 소리	ㄱ, ㅋ, ㆁ, ㅇ
목청소리(후음)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	ㅎ

② 조음 방법

파열음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	ㅂ, ㅃ, ㅍ, ㅌ, ㅍ, ㅌ, ㄱ, ㅋ, ㆁ
파찰음	일단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	ㅈ, ㅉ, ㆁ
마찰음	입 안의 공간을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ㅅ, ㅆ, ㅎ
비음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ㅁ, ㄴ, ㅇ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보내면서 내는 소리	ㄹ

울이썸의 끼어들기_ 자음의 종류

“선생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너무 많은데 이것만 외우면 자음은 끝나는 거죠?” 대답은 슬프게도 아니요. 우리는 예사소리(평음), 된소리(경음), 거센소리(격음)에 대해서도 알아야 해.

예사소리는 긴장도가 낮고 약하게 발음하는 거야. 예를 들어 ‘ㄱ, ㄷ, ㅂ, ㅅ, ㅈ’가 있지. 된소리는 긴장도가 높고 강하게 발음하는 소리야. ‘ㄱ, ㄷ, ㅂ, ㅅ, ㅈ’가 있어. 거센소리는 숨이 거세게 터지며 나오는 소리야. ‘ㅋ, ㆁ, ㆁ, ㆁ’가 있지.

추가로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해. 울림소리는 발음할 때 성대가 울리는 소리야. 비음과 유음이 있어. 안울림소리는 발음할 때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 있지.

③ 자음 체계표

조음방법		발음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 소리	비음(콧소리)		ㅁ	ㄴ		ㅇ	
	유음(흐름소리)			ㄹ			



올이쌤의 끼어들기_ 자음 체계표는 왜 알아야 하나요?

“선생님, 자음 체계표 중요해요?” 네. “왜요?” 음운 변동 현상을 자음 체계표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 ‘비음화’는 ‘ㅂ, ㄷ, ㄱ’가 ‘ㄴ, ㅁ’를 만나 ‘ㅇ, ㅁ, ㄴ’가 되는 현상이야. 자음 체계표를 보면, ‘ㅂ’이 ‘ㅁ’으로 변했으니까, 조음 방법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지?

마찬가지로 ‘구개음화’를 살펴볼까? 구개음화는 받침 ‘ㄷ, ㅌ’이 ‘ㅣ’ 모음 계열의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면 구개음인 ‘ㅈ, ㅊ’이 되는 현상이야. ‘ㄷ’이 ‘ㅈ’로 변했으니까 조음 위치, 조음 방법이 모두 변화하는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

5. 모음

단모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
이중 모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반모음+단모음)

올이쌤의 끼어들기_ ‘ㅝ, ㅞ’도 단모음이라구요?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이야.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로 모두 10개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 11개 모음은 이중 모음이 되겠지. 이렇게 설명하면 학생들이 항상 질문해. “선생님, 나머지는 다 직관적으로 납득이 돼요. 근데 ‘ㅝ’나 ‘ㅞ’도 단모음인가요? 이상해요ㅠ”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ㅝ’와 ‘ㅞ’ 모두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야. 다만 [붙임] 조항에 의해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어쨌든 기억해야 하는 것은 ‘ㅝ’와 ‘ㅞ’도 단모음이라는 사실!

① 단모음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놓이는 모음
후설 모음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놓이는 모음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혀의 높이가 높음
중모음	혀의 높이가 중간
저모음	혀의 높이가 낮음

* 참고로 입을 크게 벌릴수록 혀의 높이는 낮아진다. ‘ㅣ’, ‘ㅑ’, ‘ㅓ’를 순서대로 발음해보자.

01 음운과 음절, 음운 체계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	입술을 오므리지 않고 평평하게 하고 발음
원순 모음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리고 발음

② 단모음 체계표

혀의 높낮이 \ 입술모양	앞 뒤	전설모음(앞) ←-----→ 후설모음(뒤)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ㅣ	ㅍ	ㅡ	ㅑ
중모음		ㅕ	ㅑ	ㅓ	ㅗ
저모음		ㅙ		ㅓ	

올이썸의 끼어들기_ 모음 체계표도 알아야 하나요?

자음 체계표와 마찬가지로 모음 체계표도 여러 문법 현상과 음운 변동 현상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고전 문법에는 ‘전설 모음화’, ‘원순 모음화’ 등이 있단다. 말 그대로 전설 모음화는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 원순 모음화는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야.

예를 들어 ‘즙승’이라는 단어를 볼까? ‘즙승’은 현대 국어에서의 ‘짐승’이야. ‘ㅡ’가 ‘ㅣ’로 바뀌었어. 모음 체계표를 보면 후설 모음에서 전설 모음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이게 전설 모음화야.

‘믈’이라는 단어도 살펴보자. ‘믈’은 현대 국어에서의 ‘물’이야. ‘ㅡ’가 ‘ㅗ’로 바뀌었지. 모음 체계표를 보면 평순모음에서 원순모음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바로 원순모음화란다. 우리가 모음 체계표를 잘 알아두면, 이러한 음운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③ 이중 모음

- 이중 모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모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반모음: 모음과 같이 발음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짧은 모음. 반모음 ‘ㅣ’[j]와 반모음 ‘ㅓ/ㅑ’[w]가 있음.

올이썸의 끼어들기_ 반모음

반모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반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의 방해를 받지 않아 모음에 가깝지만, 홀로 발음되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 발음되는 애야. 이런 점에서는 자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중간적 존재로 보지. 또한 독립된 음운이 아닌 것으로 취급해.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진 이중 모음은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

j-계 이중 모음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w-계 이중 모음	ㅨ, ㅩ, ㅪ, ㅫ

상향 이중 모음	반모음이 단모음보다 앞에 오는 것(반모음+단모음)
하향 이중 모음	반모음이 단모음보다 뒤에 오는 것(단모음+반모음)

* 현대 국어에서의 이중 모음은 거의 대부분 상향 이중 모음이고 하향 이중 모음은 'ㄹ' 하나뿐이야. 다만 'ㄹ'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